

**통우컬럼**

두려워 말라!

내가 남미로 갈 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잠시 머문다. 다음 비행기로 갈아타기 위해서다. 해외를 가다보면 직항노선도 있지만, 대개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한다. 어떤 때는 여러 번 갈아탈 때도 있다. 문제는 비행기를 갈아탈 때 시간이 잘 맞아 바로 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몇 시간은 기본이고, 어떤 날은 며칠을 머물러 갈아타는 경우도 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나는 생각이 깊다. 경유지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갈 길은 먼데, 마음은 바쁜데 비행기는 연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누구는 갈아타지도 않고 단번에 목적지에 가건만, 나는 왜 갈아타야 하나?’, ‘누구는 한 번만 갈아타는데 왜 나만 몇 번씩 갈아타야 하나?’, ‘왜 이렇게 연착되는 건가. 나는 운이 안 따르나?’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일본을 가는 거면 단 번에 간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나 아프리카를 가는 거라면 몇 번을 경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큰 뜻을 품었는데 왜 시련이 없겠는가. 그게 싫다고 아무 비행기나 탈까!

경유지에서 보면 그냥 의자에 누워서, 아니면 바닥에 누워서 잠만 자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어떤 자는 그 시간에도 노트북을 두드리며 공부를 하고, 어떤 자는 책을 읽고, 어떤 자는 서류를 정리하는 자들이 있다. 인생의 경유지에서 좌절하고 낙담하여 잠이나 자고 있다면 시간 낭비다.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나를 충전하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멀리 가려면, 또 목적이 클수록 시간은 걸린다. 아름답기나무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듯이.

그러나 장답컨대 당신을 태울 비행기는 곧 온다. 그러니 낙담하지 말고 일어나 준비하라. 분명히 2021년에는 창공을 가로질러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우리는 지난 수요일예배에 이시대 목사님의 설교영상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자세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목표를 세우셨나요? 1월은 한 해의 목표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만약 1월을 흐지부지 보내버리면 2월, 3월, 그렇게 1년은 쏘살같이 지나버리고 맙니다. 비록 작심삼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발을 내딛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미 올해의 목표를 수첩에 적어놓고 시작했습니다. 올해의 목표가 몇 가지 되지만 한 가지 여기서 밝힌다면 저는 올

성취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도 하지 않고 안 된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제가 자주 간증하는 차시순 할아버지는 2005년부터 960번의 도전 끝에 지난 2010년 69세의 나이로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TV프로그램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오신 어느 할아버지는 99세에 면허를 취득하여 103세가 되셨는데도 경차를 몰고 다니십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웬만한 기술은 1년 안에 다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기도원 호텔건축 공사를 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우리는

라오는 것으로 조급하게 달려드니 조금
 해보고 안 된다면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
 에 충실한 곡식이라’(막4:28).
 ‘다 해봤어, 난 안 돼.’ 성경에 최소한 3
 년은 집중하라고 말씀하시건만, 며칠 해
 보고 안 된다고 나자빠지니 그런 조급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
 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
 으로 여기되 곧 삼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것이

머뭇거리지 마라
정거장은 머무는 곳이 아니다
목적지를 향해 갈아타는 곳이다

붕우 이초석 목사

해 성경을 일독하는데 영어성경을 읽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목표를 세우되 반드시 수첩에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세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서는 며칠 못가 흐지부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놔야 합니다. 자주 들여다보는 수첩이나 화장실이나 주방에나 아무튼 그 목표를 잊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거창한 목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올해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겠다, 영어, 중국어를 배워야겠다, 건강을 위해 하루 만보걷기를 실행해야겠다, 등등 아주 작은 목표라도 세워서 실천하고

교단의 교역자들에게 직접 기술을 전수하여 공사에 투입하였습니다. 목욕탕 타일을 붙이는데 일손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 딱 일주일 가르쳐서 공사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도원 호텔 목욕탕 타일이 얼마나 단단하게 잘 붙어있습니까? 용접, 특수차 운전, 선반, 밀링 등 웬만한 기술들은 사실 1년 안에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자신이 숙달시키는 거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도전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줄 압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도 뜨거운 여름을 지나야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법인데, 심으면 바로 열매가 올라와야 하는 줄 압니다. 세상에 포도 씨를 심었으면 먼저 싹이 나고 있어야죠. 씨를 심으면 바로 포도열매가 올

요'(레19:23). 3년간은 이익 볼 생각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듯이 열매를 따는 자는 씨 뿌린 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입니다. 제발 조금씩 생각 말고, 올해 세운 목표, 까짓것 올해 다 못 이루면 내년에 계속해서 도전하면 되는 거지요. 왜 못했다고 좌절하고 낙담하여 다 포기합니까?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 했습니다. 한 가지라도 좋으니 올해 반드시 목표를 세우시고 수첩에 적고, 화장실, 주방, 눈에 보이는 곳에 써 붙여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중에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3:1~2)

내 생각이 내 삶을 좌우한다

당신과 성공한 사람들이 다른 게 무엇일까요? 당신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다른 것이 있다면, 당신과 이초석 목사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보이지 않으나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대로 말이 나오고, 말대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라는 주머니에서 말이 나오는데, 말이 씨가 되어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고, 무씨를 심으면 무가 나듯 말입니다. 곧 멋진 생각에서 멋진 말이 나와 멋진 열매로 맺히고, 큰 생각에서 큰 말이 나와 큰 열매를 맺고, 긍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와 긍정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공상맞은 생각에서는 당연히 공상맞은 말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공상맞은 열매가 맺히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니까 부정적인 열매를 맺고, 악한 생각은 악한 말을 하게 해서 악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밭이라 생각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이 있었기에 은 삼십 냥에 스승을 판 것 아니겠습니까(요13:2)? 오늘 당신의 모습과 형편은 지난날 당신이 뿌린 말의 결과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깨닫고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내일은 지금 당신의 생각과 말에 달려 있으니깐요. 이것만 깨닫는다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여러분, 사과를 자르면 그 안에 사과 씨가 몇 개인지 바로 보이지요? 그러면 사과 씨 안에 사과는요? 모릅니다. 당신이 긍정의 씨앗을 하나 심으면 긍정의 열매를 수십 개, 수백 개 딸 수 있다는 말이고, 반대로 당신이 가시나무 씨를 하나 심었다면 언젠가 당신 주위에 가시나무가 수없이 자라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36년 전에 사과 씨 하나를 심어 지금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 교구'라는 씨앗을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 거목이 된 것입니다. 생각의 힘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

저는 두바이를 여섯 차례 가봤습니다. 해외선교의 경유지이기도 했지만, 제가 두바이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것은 두바이 지도자들의 생각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두바이는 아랍권의 페트기 같은 존재였으나 지도자인 셰이크 무함마드의 생각에 의해 세계적인 명품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원유는 바닥난다. 대체 에너지가 나온다.'는 생각을 했고, 두바이를 제2의 맨해튼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막을 관광지로 바꾸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물을 끌어들이어 푸르게 했고, 실내스키장을 만들고, 수상호텔은 물론 세계 최고층 건물을 세우는 등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사막이라는 환경을 바꾸지 못하니까 대신 생각을 바꿔 대역사를 창조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생각을 바꿔 성공한 자가 있는데, 먼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눅19). 로마의 세리장이었던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

게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사람으로

세무서장을 하는 격이니까요. 언제나 왕따처럼 살던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멀리하는 무리들 속에 동참할 수 없었고, 더욱이 그는 단신이라 사람들 틈에 끼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생각해낸 것이 있으니 뿔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자리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뿔나무를 생각한 겁니다. 뿔나무에 올라갔으니 눈에 잘 띄는 것은 자명한 일, 주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였고, 그 집안이 구원을 받음은 물론 이스라엘 자손이라 칭함을 받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디매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디매오도 들은 소식이니 모든 사람이 다 들었을 거

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매오가 예수님께 다가가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바디매오는 예수님의 관심을 끌 생각을 하다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옆에서 귀청 터지겠다고 하든지 말든지 그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막10:52)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생각을 하면 길이 있고, 생각만 조금 바꾸면 답이 있

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는 성경 본문이 마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내용인즉 예수님이 가버

나움에 들어 가니 소문이 이미 돌아

예수님이 머무르신 곳에 사람들이 이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모여 들었습니다. 이 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비집고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들 것에 실린 환자를 데리고 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창조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지붕을 뚫어 달아 내리자.'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에 박수를 쳐줬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막2:1~5).

생각보다 무서운 파괴력을 갖는 것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원자폭탄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무서운 것입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끝이야.' 하며 좌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 바다를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을까?' 생각하다 배를 만들어 냅니다.

마귀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없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죽는다'는 생각을 넣어줄 뿐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대로 우리가 '나는 안 돼', '나는 죽을

거야'라고 말하고 그 말대로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한 것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생각만 넣어 준 겁니다. 그 다음은 그 생각대로 말을 하고, 말대로 행동해서 그의 삶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산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 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이 당신의 운명을 그대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내가 안수하면 병이 낫는다', '내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 '나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삽니다. 그것이 오늘의 저와 예수중심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생각이 말을 말이 인생을 바꾼다

생각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계가 있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55:8~9).

여러분, 멋진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보란 듯이 살아보고 싶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멋진 미래가 보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큰 생각이 큰 인물을 만들고, 멋진 생각이 멋진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당신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생각이 결과'(렘6:19)라고 말씀하셨음을 마음 판에 잘 새기고 마음과 입술을 잘 지킵시다.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으로,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병든 생각에서 건강한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 자녀의 생각으로 바꿉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23:7).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말씀으로 살자

하나님은 말씀에 감동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늘에서 오는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오는 소리를 듣고 순종해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 모세는 하늘에서 오는 소리를 듣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였다. 그밖에도 하늘에서 나는 소리에 의해서 앓은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뗐으며 무덤에 장사된 자가 걸어 나오기도 하였다. 지금도 무수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히 들어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 주님의 말씀에는 푸른 나무가 말라 버리고 물고기로 세금을 토해내게 하고 다섯 개의 떡으로 오천 명을 먹일 수 있는 힘이 있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에 그것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복종할 수 있는 본성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산아, 바다로 옮겨져라!”고 명한 후에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이를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막11:23). 예수의 말씀에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지혜가 있다. 환난과 고통을 물리치고 진압

하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예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말씀을 소유할 때 우리에게 계서도 나타난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다(눅1:37).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에 도전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된다. 아무리 세상지혜가 뛰어난다 해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것을 우둔한 것으로 만드실 수 있고 그것들을 능히 초월하실 수 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며 놀라운 복이다. 따라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말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진 사람인 것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힘들어 하는 이 시간, 말씀을 우리의 기억에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게 하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시 119:10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계 1:3). 성경은 과거를 알게 하여 중심을 잡게 하시고 미래의 기록을 통하여 나아갈 방향을 보게 하시니 성령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넘치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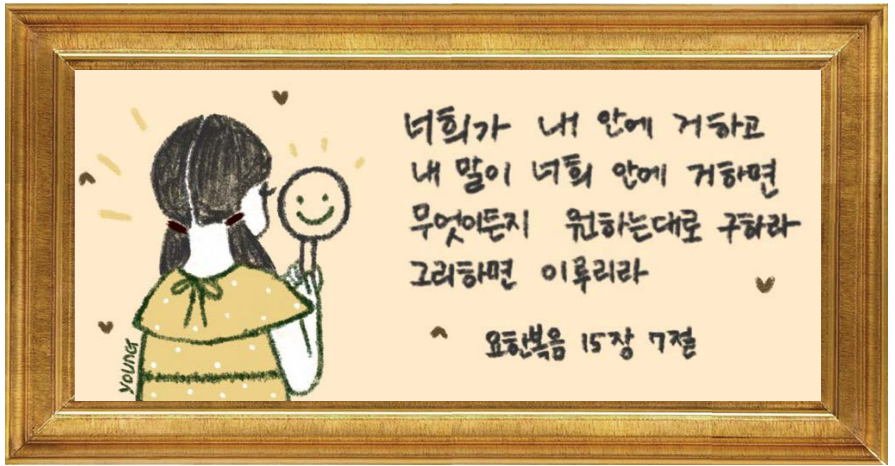
신기류 목사

응답을 바라기 전에

한 마을에 홍수가 났고 사람들이 모두 지붕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남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중에 이웃 사람이 통나무를 잡고 물에 둥둥 떠 있었다. 이웃이 통나무를 같이 잡고 구조대를 기다리자고 했지만, 남자는 하나님이 구해주려 오실 것이라며 거절하고 다시 기도를 드렸다. 그때 보트를 탄 구조대가 나타나 보트를 타라고 했다. 그 남자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라고 자기는 괜찮으니 다른 사람부터 구하라며 거절했다.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를 드리는 데 이번에는 남자의 머리 위로 구조헬기가 왔고, 구조원이 밧줄을 주며 잡고 올라오라고 소리쳤다. 남자는 이마저도 거절했다. 결국 남자는 물에 휩쓸려 익사하고 말았다.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간 남자는 하나님께 왜 구해주시지 않았냐고 불평했고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통나

무도, 보트도, 헬기도 보냈지만 네가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누구나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올해 이를 목표들, 바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이뤄달라고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 하나님은 병을 직접 고치시기도 하지만, 때론 유능한 의사를 통해 병을 낫게 하기도 하신다. 산골에서 기름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물이 변하여 기름도 되게 하시나, 보험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지나가게 하셔서 일을 해결케도 하신다.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 맞는 사람에게 지시하여 처리하듯 하나님도 천사나 사람을 들어서, 혹은 환경을 변화시켜 일하신다.

김성일 집사



:: 신년사 ::

새해에는 복 받으시다!

가을이 되면 설악산이나 내장산에는 그 유명한 단풍이 피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모여서 감탄 감탄합니다. 그런데 나무에 서리가 내리고 비바람이 불면 나무에서 떨어져 길가에 버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혀 흙물이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는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겐 힘없이 잡혀가 두 눈을 뽑히고 가사로 끌려가 눈줄에 매여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삿16:20~21). 사람들이 은혜가 넘칠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 환영합니다(마21:7~9).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돌변합니다(마27:21~24).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와 떨어져 세상으로 살아갈 때가 이렇게 다릅니다(요15:6). 태풍이 불어오고 비바람이 불어올 때면 과일나무에서 과일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과일들은 썩어서 버려야할 과일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무에 붙어 있는 과일들은 농부를 기쁘게 하고 상품가치가 있

어 비싸게 팔려나갑니다. 우리도 어떠한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아주 귀한 상품, 가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연이 실을 떠날 때는 제멋대로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져 곤두박질합니다. 연이 찢어지고 구겨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질 때 이런 꼴이 납니다. 야구공이 투수 손에 붙잡힐 때는 마음껏 쓰임을 받습니다. 야구공은 투수가 던지는 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는 대로 가야하고,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이처럼 총회장 목사님 보내는 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야구공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던지는 것처럼, 우리 주의 종들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보낼 때 순종하고 가면 어느 곳이든지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은 투수가 던지는 대로 가는 것처럼, 총회장 목사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제멋대로 가는 공은 투수에게 버림받습니다. 주의 종도 심어야 합니다. 증산동에서 개척할 때 새신자 심방 할 때면 20kg 쌀부대를 메고 가져다드렸더니 이모 집에 왔

다가 이 모습을 본 어느 사람이 자기 교회로 돌아가 헌금을 천만 원이나 보내왔습니다. 쌀 한 포대에 헌금 5백만 원을 내놓으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재정 부족할 때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로 때 그만큼 심었기 때문에 지금 찾아쓰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필리핀 교회건축(80평)을 단독으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때 계시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성도가 150명이나 된답니다. 목사가 네 분이나 되었답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로 형용 못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 결혼식 축의금으로 10만 원 가져가면 비망록에 적어두었다가 나중에 갚아줍니다. 내가 가면 상대방도 오고 안 가면 안 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씨앗이 한 되 있어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평생 한 되이지만, 땅에 심으면 백 말, 천 말, 만 말이 되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심어야 백 배 천배로 돌아옵니다. 은행에 가서 현금출납기에 돈을 넣으면 통장에 입금되고 출금도 됩니다. 그런데

불량지폐는 기계가 거절합니다. ‘남은 지폐는 불량지폐입니다.’하고 기계에서 소리가 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헌금도 불량이 아닌지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예배, 기도, 헌금만 받으십니다. 끝으로 어느 목사님과 집사의 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집사에게 “교회 일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 집사 왈, “목사님, 지금 회사 일로 바쁘고요, 그러니 나중에 은퇴해서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할게요.” 목사님은 “그때는 하나님도, 나도 집사님이 필요 없습니다.” 또 어느 집사님에게 “왜 요즘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까?”라고 했더니, “바빠서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예, 하나님도 바쁘셔서 집사님을 도와줄 수 없으시네요.” 또 다른 집사에게 “왜 요즘 감사가 없습니까?” 했더니, “깜빡깜빡 잊어버려서요.” 목사님은 “하나님도 깜빡깜빡 잊어버려 집사님을 도와줄 수 없으시네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주께서 내가 필요할 때, 내 물질이 필요할 때, 내 재능이 필요할 때 쓰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2021년에는 복 받는 자들이 됩시다.

평택 예수중심교회 박종수 목사

목사님의 축복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목사님, 코로나 시기에 심신이 피곤하실 텐데 변함없으신 열정과 믿음으로 저희를 올바르게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 학원이 집합금지로 지난 9월, 12월 사활을 건 사투로 승리한 것을 간증해도 되는지 고민하다 조금이나마 성공사례로 주안에서 기쁨을 공유할 수 있을까

하여 용기를 내어 올립니다.
지난 10월에 H수학 비대면 우수사례 공모에 전국 1위를 달성하여 수상하였고요. 11월에 H영어는 좀 아쉽지만 10위 안에 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집합금지이지만 임대료 할인 전혀 없이 임대료, 관리비, 교재비 등 수백만 원의 고정비가 불면증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인천집회 마지막 날 저희 부부에게 축복기도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1주일 뒤 목사님 님은 열정의 수학 지사장의 방문과 권유로 기존영어에 수학을 덧붙여 열정적으로 노력하게 되었고, 지역 최우수교실, 또 이번 10월에 비대면 우수사례 1위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도 두 차례나 수업 현장 촬영을 왔고요. (지금은 점점 비대면 수업이 익숙해지고 발전하여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영상과 다른 몇 우수사례 동영상을 전국 모든 가맹점 의무 수강 자료로 1월 중에 수료할 것을 명령하였답니다.
또한 송구영신예배 때 목사님의 메시지처럼, 좋은 인연이 더욱 열정을 갖게 하고,

서구지역에서 블로그 상위노출, 또한 영어, 수학 모두 팀장 겸 멘토로 지정받는 명예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어 목사님의 축복기도와 말씀이 공감되어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열정과 말씀이 버겁지만 따르면 복이 되는 것을 압니다. 제 주변엔 좋은 인연의 수학, 영어 지사장들의 열정이 저희를 쉬지 못하게 하고 코로나 시기에 모두 어렵다고 하지만 성공사례를 만드는 계기가 되니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비대면 수업이 서툴거나 포기한 많은 원장들에게 귀감이 되어 선정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축복기도가 이루어진 것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비대면으로 성공한 저희 교단과 목사님도 더욱 건강하시고 방송팀 분들 모두와 앞으로 대박 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이겨나갑시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인천예수중심교회 이현구 지휘자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부르심의 소망 ::

닭과 독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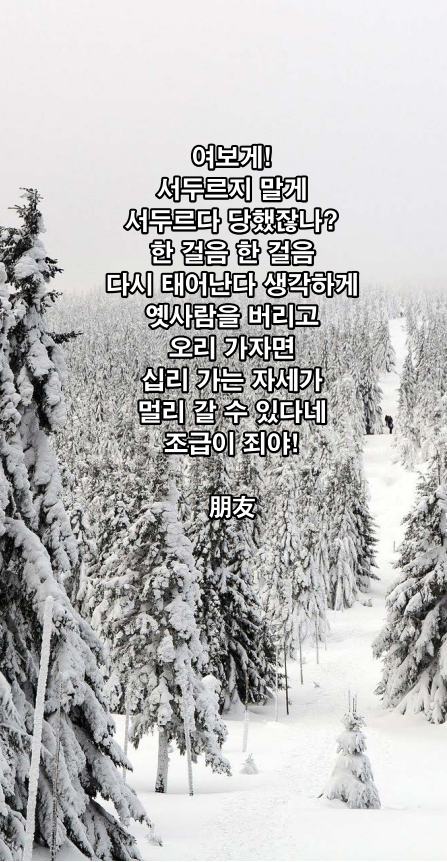
2021년, 저는 이제 독수리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수리는 높이 올라서 멀리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력도 좋고 시야도 넓습니다. 날개도 크고 잘 발달되어 있지요. 반면에 닭은 바로 앞 땅바닥만 바라보고, 하는 일이라곤 고작 모이를 쪼아 먹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시야도 좁고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또 날개가 있지만 거의 날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어떠한 기후에도 잘 적응하지만, 닭은 온도 변화에 예민해서 온도를 잘 유지해주지 못하면 병에 잘 걸립니다. 태풍이 불면 닭은 머리를 파묻고 덜덜 떨고 있지만, 독수리는 오히려 태풍 속으로 돌진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날 수 있어서 바람을 즐깁니다. 더 이상 바로 코앞만 보면서 조금만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틀어지면 파르르 떠는 닭 같은 삶은 싫습니다. 높이 올라서 멀리 바라보는 것, 바로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독수리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마음을 넓히라 했건만 그러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도 인색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제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말입니다.
첫 번째 기회는 그 사람과의 사이가 막 틀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미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 때 저는 정의로운 심판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교만했습니다. 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나 그 자리에 제가 앉아서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과 성경의 잣대를 율법처럼 칼같이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회는 제 안에 미움이 사라지고, 정의로운 심판관 자리에서 내려온 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 후에 주어졌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식을 하던 중에 그 사람과 제가 틀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마음이 좁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의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완벽하려고 제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고, 누군가의 실수로 인한 억울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에 하나님이 완벽한 결과물보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임을 믿었더라면, 억울함을 겪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 내게 허락하

신 일이라는 것을 믿었더라면, 그리고 그 억울함을 잘 견디고 나면 반드시 값싼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믿었더라면, 그랬더라면 내게 넉넉함이 있었을 텐데... 결국 제 마음이 좁았던 것도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였고, 그때의 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감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제게 원하신 건 정의로운 심판관이 아니라, 같은 죄인의 자리에서 긍휼을 구하는 다니엘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애3:32~33, 단9:3~19). 좁고 좁은 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다는 것에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식이 끝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태풍이 불 때에도 자유롭게 비행하는 독수리처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제 마음을 넓히겠습니다. 더불어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독수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영신
rubyday0@naver.com

미래를 보자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태양은 8분 전 과거의 태양의 모습이다. 태양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 8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달은 1.3초 전의 모습이고 태양계 끝은 1년 전, 멀리 북극성은 자그마치 400년 전의 모습이다. 이렇듯 우리는 늘 본의 아니게 과거의 모습을 보며 살아간다.
그래서인가? 과거에 사로잡혀 새롭게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간혹 본다. 현재의 모습을 직시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과거를 보며 그곳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작은 예를 한 번 들어보자.
작년 새해 목표 중 하나인 성경 1독을 실패했다 치자. 그럼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잡거나 목표를 세우는 게 좋을까? 작년에 이미 실패했고, 올해 또 도전해봐야 실패할 것이 뻔하니 올해는 성경 읽기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목표 수정을 해서라도 다시 도전해서 결국은 목표를 이뤄낼 것인가?
당연히 말하고 싶은 부분은 후자이다. 목표 변경은 얼마든 가능하다. 성취 가능한 새로운 목표를 잡고 다시 도전해서 성공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실패하는 사람은 늘 실패를 반복한다. 실패의 습관이 들어서이다. 작더라도 성공의 습관만 잘 쌓아가다 보면 미래의 모습이 점차 아름답게 변해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21년,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고 다시 한 번 도전해볼 때이다. 과거의 모습에 더 이상 발목 잡히지 말고 멋진 미래의 모습을 꿈꾸며 힘차게 달려 나가보자. 과거를 보는 사람이 아닌, 미래를 보는 사람이 되자.
장명훈 집사



여보게!
서두르지 말고
서두르다 당했잖나?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태어난다 생각하게
옛사람을 버리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는 자세가
멀리 갈 수 있다네
조금이 죄야!

朋友